

참된 의사 예수님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5:30-32]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31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32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병든 사회, 병든 가정, 병든 개인들이 많은 병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그런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영과 육으로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 의사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침의 능력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고침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 있지만 그런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더우기나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여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의 고침과 아울러 몸의 고침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병 고침과 회개함을 동등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병 고침과 회개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며, 병 고침에 있어서 회개가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이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의사이심을 말하신 것이며,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노라”고 하셨으니 바로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요, 그들을 고치려면 회개의 단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인들 및 율법 학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지봉을 통해 내려진 마비 환자 한 명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시면서 먼저 그 병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20]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능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24-25]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영혼의 병들로 사람들의 영혼들이 좀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자존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병자임을 알지 못하면서 그 병의 온갖 부작용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자신의 원칙이 충돌할 때에 자신의 원칙을 우선하여 채택하여 따름에서 오는 부작용이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침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병든 현세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가르치고,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을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화 하고, 전염병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온 세상을 혼란과 고통에 몰아 넣는 일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크게 병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람들은 '물욕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이 들면서 시작되는 이 병은 기력이 다하여 죽기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 섬겨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데에서 오는 온갖 부작용으로 영혼이 병들고, 사회와 교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신에 물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분의 원칙들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교인, 목회자,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들은 회개해야만 그 병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환자의 병을 백퍼센트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 주실 뿐 아니라, 그 처방을 무료로 마련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에 있을 때에 몸도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되면 몸의 건강도 자연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이 마비병 환자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죄들을 예수님께서서 용서하신 것은 그가 주님 앞에 내려졌을 때에 몸과 마음이 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회개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주 예수님께 나아가 병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의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가도 됩니다. 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참된 의사 선생님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기 권합니다. 아멘.